캠페인「버디 매뉴얼」

그랜드 오프닝

■ 그랜드 오프닝에 대해

그랜드 오프닝은 프로젝트 버디 매뉴얼의 시작을 알리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룰에 따라 그랜드 오프닝에서는 씬에 등장해도 침식률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침식률에 의한 경험점도 얻을 수 없다.

그랜드 오프닝에 대해

그랜드 오프닝은 캐릭터 작성을 마친 후 연출하는 씬이다. 프로젝트 버디 매뉴얼이 시작되기 직전의 일상, 그리고 전조를 연출한다.

● 씬 1 : 새로운 현상의 발견(마스터 씬)

◆ 해설

프로젝트 '버디 매뉴얼'이 시작되는 씬.

'라플레시아' 히메미야 유리카가 '리바이어선' 키리타니 유고에게 페어링 현상에 대해 보고를 한다. 키리타니는 이 현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페어링 현상을 활용해 소속 오버드의 점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을 한다. 그리고 이 현상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된다.

'라플레시아' 히메미야 유리카

UGN의 레니게이드 연구팀, R랩의 연구원. 자세한 사항은『R1』p238 참조.

'리바이어선' 키리타니 유고

UGN 일본지부의 지부장. 자세한 사항은『R1』p236 참조.

▼ 묘사

UGN 일본지부의 지부장실. 그곳에서 한 연구원이 자신의 상사를 향해 보고를 하고 있었다.

▼ 대사 : 히메미야 유리카와 키리타니 유고의 대화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그러한게 가능하다고요?"

"네에, 가능하니까 보고 드렸겠죠? 이건 새로운 발견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레니게이드 연구가 발칵 뒤집힐만한 현상이죠."

"그게 정말이라면 이건 기적입니다. 어쩌면 그 현상으로 많은 이들을 겸화의 위험성에서 구해낼 수 있게 될거에요."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건 너무 매력적이네요. 타인의 침식률을 주도 받을 수 있다니……. 그러고 보니 이걸 뭐라고 불러야하죠?"

"R랩에서는 이 현상을 '페어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페어링이라……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서로 한 쌍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오버드에게 있어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어쩌면 이 현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프로젝트요? 이 일중독자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오버드 에이전트를 2인 1조로 배치하여 서로를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프로젝트 명은…… 그래 '버디 매뉴얼'로 할까요. 앞으로 이런 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겠네."

◆ 결말

히메미아는 지부장 실을 나선다.

히메미아와 키라티니 간의 대화가 끝나면 씬 종료.

● 씬 2 : 이별은 또 다른 인연 (PC)

◆ 해설

PC의 그랜드 오프닝. PC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발탁되어 UGN 일본지부 에이전트로 전근가게 된다. 전근의 날, UGN B시 지부의 지부장 타카키 쿠류와 그의 비서 타카키 시온이 배웅해준다.

▼ 묘사

UGN B시 지부.

당신은 정든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UGN 일본 지부장 '리바이어선'이 제안한 프로젝트 '버디 매뉴얼'에 발탁되어 UGN 일본지부 에이전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짐을 챙겨 출입구로 가는 길. 그 앞에 당신의 상사였던 자, UGN B시의 지부장 타카키 쿠류와 그의 비서 타카키 시온이 서 있었다.

아무래도 당신을 배웅하려는 모양이다.

▼ 대사: 타카키 쿠류

"정말 유능했는데, 아쉽게 되었어."

"그래도 나름 승진이잖아? 일본지부의 에이전트가 된 건."

"너라면 거기서도 잘 할거야. 믿고 있다고?"

▼ 대사: 타카키 시온

"그 동안 수고 많았어요, PC. 이건 이별 선물(*)이에요. 이 사람이랑 열심히 고민한거라구요?"

"그곳에 가서도 잘 살아야해요. 어차피 그렇겠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이별 선물

PC의 설정에 맞춰 PC가 좋아할만한 것을 고른다.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을 경우 B시의 마스코트인 귀여운 박쥐 인형 키링을 선물한다.

◆ 결말

타카키 쿠류와 타카키 시온과의 대화를 마치고 B시 지부를 나서면 씬 종료.

● 씬 3 : 만남은 새로운 인연(PC&MPC)

◆ 해설

PC와 MPC가 처음 대면하는 씬.

UGN 일본지부의 지부장 실로 불려온 두 사람은 '리바이어선' 키리타니 유고와 대면, 프로젝트 '버디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 묘사

UGN 일본 지부의 지부장실.

PC가 그곳에 들어가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쪽은 UGN 일본지부의 지부장 '리바이어선' 키리타니 유고. 그리고 나머지 한 쪽은…… 모르는 사람이다.

▼ 대사: 키리타니 유고

"어서오세요, PC.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네요."

"이쪽은 MPC.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활동하게 될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그럼 두 사람을 부른 본론으로 들어가죠."

"최근 레니게이드 바이러스에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조건만 된다면 서로의 침식률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현상…… R랩에서는 이를 '페어링'이라 명명했습니다."

"두 분은 그 특정 조건 중 하나인 동조율(*)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범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페어링 현상은 어쩌면 오버드가 가진 겸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두 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된 기념으로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시는게 어떠실까요? 비용은 청구해도 됩니다. 두 사람만의 회식…… 이라고 하죠."

동조율

PC와 MPC의 동조율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즉석에서 정해도 된다.

◆ **결말**

페어링 및 프로젝트 버디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본 지부장 실을 나서면 씬 종료.

● 씬 4 : 아직은 어색한 사이 (PC&MPC)

◆ **해설**

PC와 MPC가 친목을 다지는 씬.

GM은『BM』에 수록된「대화 주제표」및「일상표: UGN」(혹은「일상표: 범용」)을 ROC하여 PC와 MPC가 대화를 하게 한다. 반드시 해당 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 플레이어와 합의하여 장면을 진행한다.

혹은 씬 5에 있었던 키리타니 유고의 제안대로 식당에서 두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연출해도 된다.

▼ **묘사**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두 사람.

지금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 **대사: MPC**

“그럼 이제부터 뭘 할까요?”

“아직은 어색하네요, 하하…….”

“다시 인사할게요. 만나서 반가워요.”

◆ **결말**

PC와 MPC가 일상을 보내면 씬 종료.

● 씬 5 : 새로운 인형 (마스터 씬)

◆ **해설**

‘마스터 퍼펫’이 분신체를 이용해 UGN에 잠입, PC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는 씬.

‘마스터 퍼펫’의 분신(*)은 UGN의 데이터 베이스를 해킹하여 ‘프로젝트 버디 매뉴얼’에 대해 알게 된다. 이 프로젝트에 흥미를 갖게 된 ‘마스터 퍼펫’은 재미삼아 자신의 데이터를 집어 넣게 되고, 자신과 동조율이 99.9%(*)를 보이는 PC에 대해 알게 된다.

‘마스터 퍼펫’의 욕망은 자신과 함께 이상을 함께 실현할 파트너를 찾는 것. 그러한 욕망을 가진 ‘마스터 퍼펫’이기에, 그는 PC에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며 PC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려는 음모를 세우게 된다.

‘마스터 퍼펫’의 분신

시나리오 1부터 등장하게 될 연구원 코시마 코토하다.

동조율이 99.9%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캠페인에서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실제로도 PC와 ‘마스터 퍼펫’과의 동조율이 높아도 되고 기기 상의 오류였다고 해도 상관없다.

어쨌든 이 결과로 인해 ‘마스터 퍼펫’은 PC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

▼ 묘사

심야.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간에 누군가가 UGN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한다.

그 자의 정체는 FH의 마스터 에이전트 ‘마스터 퍼펫’. UGN의 연구원의 몸에 자신의 인자를 심어 분신체로 만든 후, UGN에 잠입한 것이었다.

‘마스터 퍼펫’은 분신체의 기억을 읽어들여 손쉽게 UGN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한다. 그 중 ‘마스터 퍼펫’의 눈에 띄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니…….

▼ 대사: ‘마스터 퍼펫’

“페어링……. 새로운 레니게이드 현상이 발견 된건가. 뭐,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지만.”

“프로젝트 버디 매뉴얼…… 이건 흥미롭네. 부러워, 나도 나와 어울리는 짝을 찾고 싶은데.”

“동조율이 높을 수록 페어링이 잘 된다라…… 재미 삼아 한 번 해볼까? 어쩌면 누군가 저랑 잘 맞을 지도?”(자신의 데이터를 입력한다)

(결과를 보더니) “99.9%……?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고?”

“기계가 고장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대상을 확인한다) “PC라…… 어쩌면, 어쩌면 정말로 나의 짝을 찾았을지도 몰라. 아아, 진짜 찾은거면 어떡하지? 나 너무 좋아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후후, PC를 데려올 준비를 해야겠어. 기다려, 나의 단짝. 곧 데리러 갈테니. 나의 귀여운 꼭두각시가 되어줘.”

◆ 결말

‘마스터 퍼펫’은 입력된 자신의 데이터를 지우고 유유히 사라진다. 그 날 밤 FH의 마스터 에이전트가 UGN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씬 종료.